

People & Life

소녀시대, 美 MTV 출연...타임스퀘어 생중계



이중 뉴욕 타임스퀘어의 MTV 오픈 스튜디오에서 열린 'MTV IGGY' 촬영 모습은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소녀시대를 보기 위해 미국 각지에서 온 팬들이 운집했다.

이중 뉴욕 타임스퀘어의 MTV 오픈 스튜디오에서 열린 'MTV IGGY' 촬영 모습은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소녀시대를 보기 위해 미국 각지에서 온 팬들이 운집했다.

화순에도 '얼굴없는 천사'

익명의 독자가 이웃돕기성금 2천만원 기탁

익명의 한 독자가 불우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화순군에 거액을 기탁했다. 25일 화순군에 따르면 신분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독자가 이날 군청 주민복지과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직원들에게 20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익명의 한 독자가 불우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화순군에 거액을 기탁했다. 25일 화순군에 따르면 신분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독자가 이날 군청 주민복지과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직원들에게 20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세계 50대 골프 코치에 한국 5명 올라



미국을 제외한 세계 50대 골프 코치 명단에 한국 코치 5명이 이름을 올렸다. 골프 다이제스트는 '미국의 50대 코치'와 함께 '미국을 제외한 세계 50대 코치'를 선정했다고 25일(한국시간) 전했다.

보유하고 있고 5명을 보유한 한국이 두 번째다. 캐나다, 호주가 각 4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판소리 대중화 헌신 최승희 명창 '동리대상'



(세종문화재단)는 최근 판소리 중흥과 대중화에 헌신한 공로로 최승희(74) 명창을 제21회 동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종빈 담양국씨 종친회장 '장한 어버이상'



국종빈 담양국씨 계파 광주시 종친회장이 최근 사단법인 한국효도회가 시상하는 장한 어버이상을 수상했다.

'10년 우정' 실종 박영석 대장 찾아 네팔 간 허영만 화백

"이번 등정이 마지막이라 했는데..."



"박영석 대장이 이번이 마지막으로 산에 가고 다음부터 등반대장을 맡아 지휘만 하겠다고 했는데..." 허영만(64) 화백은 25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빌라 에베레스트'에서 박 대장 실종사고 소식에 이렇게 밝히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끝을 흐렸다.

실종된 박영석 대장의 동생인 박상석(왼쪽)씨와 허영만 화백(가운데)이 네팔로 출국하기 위해 지난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

을 배웠다"고도 했다. 대한산악연맹 관계자 몇몇만 알고 있을 즈음인 지난 19일 사고소식을 접했다는 허 화백은 "사고소식을 듣고서 서울에 가만히 있자니 마음이 편치 않아 카트만두에 왔다"고 말했다.

현대삼호중-전남대·조선대·목포대 MOU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오병욱)은 지난 24일 영암군 삼호읍 호텔현대에서 전남대·조선대·목포대 등 지역 대학 3곳과 산학협력 연구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생산성본부 CEO경영아카데미 수료식



한국생산성본부 호남지역본부(본부장 윤병갑)는 지난 24일 광주리마디 호텔에서 호남8기 CEO경영아카데미 수료식을 가졌다.

건보공단 의료단 소외이웃에 의료봉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광주시치과의사회·광주일곡병원·밝은안과21병원 등과 함께 최근 광주시 북구 건국동 주민센터에서 다문화가족 및 저소득 취약계층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외규장각 도서 반환 큰 공헌 박병선 박사 위독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받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재벌 역사학자 박병선(83·여) 박사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주프랑스 한국대사관과 박 박사의 친척 등에 따르면, 박 박사는 지난 8월 파리에서 수술을 받은 뒤 요양을 해왔으나 최근 병세가 급격히 나빠져 다른 병원에서 옮겨진 후 위독하다.



독신으로 지내던 박 박사는 지난 9월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으나, 그동안 입원해 있는 바람에 훈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국립공원의 야생화. 봄부터 9월기 지나 꽃피워 '구절초'. <130> 구절초. 구절초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전국의 강과 들, 길가의 초원에서 흔히 자란다.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故人의冥福을 빕니다. 김치익 님(여/69세), 김유중주 님(남/57세), 김길철 님(남/76세), 김정복 님(여/92세), 김치익 님(여/69세), 김유중주 님(남/57세), 김길철 님(남/76세), 김정복 님(여/92세).